

# “태풍 또 온다” 가슴 졸이는 상습침수 지역 주민들

### 광주 남구 우수차수관 설치·모래주머니 배포 등 대책 마련 분주 전남도 비상체제 돌입 속 물폭탄 우려에 수확기 농가 걱정 태산

제25호태풍 '콩레이(KONG-REY)'가 5일 밤 남해안에 상륙한 뒤 6일까지 이틀간 최대 300mm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광주·전남지역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봄 내해부터 지난 8월 태풍 '솔릭'까지 크고 작은 기상 이변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의 걱정도 깊어

지고 있다. 솔릭 뒤끝에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남구 주민 등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4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과 31일 두차례에 걸쳐 시간당 최고 60mm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시 남구 주월동 명성아파트와 먹자골목 일대에 높이 60cm짜리 우수차수관(평균길이 1.6m)을 설치했다. 남구는 상습침

수지역에 거주하거나 장사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뒤 이날 48세대에 66개의 우수차수관을 설치했다.

우수차수관은 빗물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철판 받침이다. 설치비용은 1판당 30만원대로 빗물차단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우수차수관과 함께 모래주머니 7000여개를 준비하는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냉해·가뭄·호우·폭염으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농가도 있을 만하면 첫

아오는 태풍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보성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철성(50)씨는 “올해 벼농사가 풍년이다. 빨리 농사를 시작한 곳은 지금 추수를 하고 있지만, 태풍으로 추수를 앞둔 벼들이 흔들리고 물에 잠길 경우 상품 가치를 잃게 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나주에서 배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형근(59)씨도 “올해는 유독 이상저온과 폭염, 태풍 등 잇따라 약재가 겹치면서 과수 피해가 극심하다”며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상품성 있는 과일을

따야 하지만 도와주는 인손이 부족해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도 농업시설물 관리에 들어가는 등 태풍 비상체제 돌입했다.

전남도는 태풍이 동반한 매우강한 비와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황숙기에 접어든 벼를 조기 수확하기 위해 콤팩트 1만1000대를 동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과일 역시 태풍 콩레이의 영향권에 들기 전 조기 수확하도록 과수농가들을 독려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해수면 온도 여전히 높고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 안돼 지구 온난화 영향 속 태풍 발원지는 여름과 다름없어

### 강력한 가을 태풍 왜?

복합적인 태풍 콩레이(KONG-REY)는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은 가을태풍이다.

기상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이 지난 2016년 10월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태풍 차바(Chaba) 이후 2년 만으로, 태풍 발원지인 북서태평양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현상이 여름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 배경을 찾고 있다.

4일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에 따르면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4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모두 349개였다. 매년 3.1개 꼴이다. 이 기간 10월 태풍은 단 6차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가운데 90%는 7~9월에 찾아오며, 5~6월 또는 10월에 찾아드는 태풍은 매우 드물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기상학계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 태풍 시즌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반도는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태풍 발원지는 여전히 여름과 다름없는 기상여건에 놓인 탓이라는 것이다.

근거로는 저위도 부근에 여전히 매우 강력한 태풍을 생성할 정도로 많은 열에너지가 분포하는 점, 태풍의 길잡이이자 폭염을 부르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수축이 늦은 점, 태풍의 병풍 역할을 해 줄 찬 대륙성고기압이 아직 강하게 발달하지 않은 점 등을 들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10월에도 태풍은 늘 발생했지만 우리나라로 향하는 게 된 배경에는 결국 여름과 흡사한 기압 배치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전두환, 회고록 명예훼손 배상 판결 불복·항소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사재판의 항소기간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은 뒤 2주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18을 왜곡해 관련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회고록에 대해서는 출판 및 배포를 금지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싯곳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써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 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남구에도 '사랑의 밥차' 생겼네. 광주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4일 광주 남구 푸른길공원에서 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오픈식을 가졌다. 사랑의 밥차는 IBK기업은행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후원으로 매주 목요일 남구 푸른길공원에서 운영한다. /나명주mjna@kwangju.co.kr

## 경찰, 여자원생·아동 학대 의혹 보육원 전수조사

### 인권위도 조사관 파견 재조사

원생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광주 동구의 A보육시설(광주일보 2018년 9월27일자 6면)에 대해 경찰이 관계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관을 광주로 파견해 피해 원생을 만나

는 등 재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광주시, 동구청, 아동복지 전문기관 등에 아동학대 의혹이 있는 A 보육시설을 합동으로 전수조사하자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전수조사는 기관의 일정협의 거쳐 내주 초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전수조사가 끝나면 피고발인 신분으로 해당 보육원 원장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조사관을 광주로 파견했다. 인권위 조사관은 지난달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원 원장 등을 광주지검에 고발한 YWCA 솔빛타운시설을 방문하고, 학대 피해자를 만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검, 코카콜라 노조원 영장 기각...경찰 과잉 대응 도마에

코카콜라 노조원 과잉징압 의혹(광주일보 2018년 10월 2일자 6면)을 받고 있는 경찰이 노조원 A(30)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역 노동계는 생존권을 주장하는 노조활동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

등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경찰이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 분회 조합원 A(30)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광주공장 정문에서 '운송료 인상' 농성을 하면서 출

자 방해와 경찰의 어깨를 밀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검사와 화상면담을 한 A씨가 잘못을 인정한다, 업무방해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사측에서 노조의 혐의 중이고,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여수화력발전소 불 1명 사망·4명 부상

4일 오전 11시 16분께 여수시 증흥동 여수산업단지 내 여수화력발전소 대형 저장고(사일로) 야외 작업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한 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화재는 석탄을 보관하는 저장고 바로 옆에서 발생했으며 전력 공급 시설은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허위업체 만들어 수억 가로챈 전력거래소 전 간부 구속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4일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력거래소 전 간부(1급급)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사장을 앞세워 허위 사업체를 만든 뒤 2013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홍보 관련 납품과 용역 제공 등 명목으로 169차례에 걸쳐 4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지난 6월 전력거래소측으로부터 감사에 따른 내부비리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를 하던 중 박씨의 비리행위를 적발했으며, 현재 애초 의뢰받은 비리 수사도 진행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조건만남 여중생 상대 협박

○광주에서 20대 회사원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여중생과 조건 만남을 가진 뒤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협박까지 했다가 검찰행.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성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A(27·골프장 종업원)씨는 최근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중생 B(12)양을 만난 뒤 성관계 3회를 조건으로 5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성관계 이후 돈을 주기는커녕 자신을 조폭으로 소개하고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가하면 성관계 동영상 있다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는 것.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회부받은 광주지검시민위원회는 “초등학교를 가 졸업한 어린소녀를 상대로 성관계를 한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일삼은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구속의견을 제시. /박진표 기자 lucky@

#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성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5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